



趙源振  
三星電機(株)特許代理

# 工業所有權制度的發祥地(下)

〈前號에서 계속〉

## 3. 유럽特許廳(EPO)

獨逸特許廳 옆에 위치한 유럽特許廳은 WIPO 보다도 더 현대식으로 지어졌으며, 입구에 설치한 조형물들은 研修團員들의 뇌리 속에 남아 있기에 충분하였다.

유럽特許廳에서는 EPO현황소개 및 국제간의 기술협력 및 特許허여 절차에 대한 세미나가 있었다.

### 1) EPO 創設

EPO는 WIPO 다음가는 工業所有權에 대한 세계기구로서 1973년부터 기본적인 문제가 논의되어 1977년 EPO체결이 발효된 후 1978년 6월1일부터 出願업무를 개시하였다고 한다.

현재 회원국은 13개국으로서 오스트리아, 벨기에, 西獨, 프랑스, 이탈리아, 리히텐슈타인, 스위스, 룩셈부르크, 스웨덴, 네덜란드, 스페인 및 그리스, 英國 등이다. 현재 EEC국가이면서 EPO회원이 아닌 나라는 아일랜드, 덴마크, 포르투갈 등 3개국이며, EEC국가가 아니면서

EPO회원인 나라는 스위스, 오스트리아, 리히텐슈타인 등이다.

### 2) 組織 및 役割

1명의 廳長(President) 밑에 5개의 총국으로 되어 있으나, 가입국의 대표로 구성된 관리이사회의 감독을 받고 있으며, 각 총국의 長은 차장(Vice president)이 맡고 있다고 한다.

제1총국은 헤이그지청에 있으나, 헤이그지청은 베르린에 지소를 두고 있으며, 나머지 4개의 총국은 본 研修團이 방문한 뮌헨(München)에 위치하고 있었다. 근무직원수는 헤이그지청에 약 1,000명, 뮌헨에 약 950명, 베르린지소에 150여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그중 제1총국의 헤이그지청에는 약 700여명의 審査官이 근무하고 있다고 한다.

각 총국별로 담당업무를 살펴보면, DG1 (Directorate General 1)은 조사(Search)업무를 행하고 있는데, 이는 유럽特許出願의 최초 단계로서, 방식심사 및 유럽特許出願의 공개준비를 행하는 바, 出願된 것 중 90%이상이 審査請求 된다고 하며, DG1에는 접수과, 조사

과 및 문헌과 등의 3개부서로 구성되어 있다.

DG2는 審査 및 이의신청 업무를 행하고 있는 바, 이곳에는 약 350여명의 審査官이 근무하면서 실체심사를 행하고 있으며, 화학 및 관련분야, 物理 및 電氣·電子분야, 機械 및 一般技術분야 등 크게 3개분야로 나누어져 있다.

DG3은 항고업무를 행하고 있는데, 항고법률국 1개와 항고기술국 4개로 구성되어 있으며,

DG4는 행정업무를 관장하고 있는데, 조직, 재정, 인사, 일반행정, 정보 및 언어 서어비스 등 6개부서로 구성되어 있으며,

DG5는 법률 및 국제문제를 담당하고 있는 바, 계약국 및 제3국과의 법률 및 국제관계, 다른부서의 법률자문 및 EPO 辨理士 자격부여 및 EPO 시행령 改正등을 맡고 있다고 한다. 특히 DG5는 EPO, 日本 및 美國 3자간의 工業所有權분야의 협력을 위해 매년 2회의 모임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

### 3) 出願審査 및 異議申請

제1단계는 DG1에서 방식심사를 행하는데, 그에 대한 불복자는 항고할 수 있으며, 방식심사가 끝나면 Search Report를 작성하여 出願人에게 송부한 후 出願 및 Search Report를 공개한다.

제2단계는 DG2에서 실체심사를 행하는데, 그에 대한 불복자 또한 항고를 할 수 있으며, 실체심사는 新規性 및 創作性, 産業上 이용가능성 등을 審査하는 바, 審査官은 出願人과 연락을 통해 문제점을 명확히 한 다음 特許허여 또는 거절여부를 결정한다.

한편, 이의신청은 부여된 特許에 대하여 제3자가 제기할 수 있는데,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사유는 發明이 特許될 수 없는 것에 대해서 特許허여 되었다는 사유이어야만 가능하다 하니 이 점은 韓國과 다른점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 4) SIEMENS社

5月 31日 (水) 아침. 獨逸 유수의 다국적기업인 지멘스社를 향하는 團員들의 발걸음은 매우 가벼워 보였다. 특히 電子·電氣관련

회사의 단원들은 더욱 그렇게 보였다. 지멘스는 이미 알고있다고 피 電氣通信情報시스템, 의약, 텔레커뮤니케이션, 半導體 등 다양한 産業분야에 참여하여 獨逸 및 세계 여러 국에 지사 및 협력회사를 거느리고 있는 대규모의 그룹이다. 종업원수만 하여도 전세계 각국에 353,000여 직원들이 근무하고 있는데, 전체직원 중 42,000여명이 研究·開發업무에 종사하고 있으며, R&D의 투자액은 65억 DM정도라고 한다.

본 研修團이 주로 견학하고 온 분야는 세상의 관심의 초점이 되고 있는 半導體분야를 중점적으로 설명들었으며, 研究개발자 자신들도 日本에 비하여 半導體분야에서 약2년 정도 뒤떨어졌음을 자인하고 있었다. 특히 인상에 남는 것은 모든 시설들이 지하시스템으로 상호 연결되어 있는 것이었다.

特許업무에 관한 사항은 경쟁사의 特許보유 현황까지 전산화되어 있어 검색결과를 타부서 및 자매회사가 신속정확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고 한다. 特許전담부서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은 약 400여명이며, 연간 特許出願건수는 국내가 약 2,500건, 외국은 日本, 美國을 중심으로 약 3,500건으로 도합 약 6,000건에 이른다고 한다. 獨逸 국내出願건수는 앞서 거론한 바와 같이 약 49,000건 정도이다.

본 研修團의 안내를 맡은 Dr. Von Steinsdorf 수석연구원은 백발 노인사임에도 불구하고 정열적이고 성심성의껏 설명을 아끼지 않아 지하시스템 못지 않게 필자의 마음속에 깊이 남아있다.

### 5) BMW社

Siemense社의 방문을 마치고 본 研修團은 독일의 대표적인 자동차회사인 BMW社로 향했다. BMW社는 항공기엔진, 자동차 및 오토바이 생산업체로 우리에게 많이 알려져 있는 업체다. 특히 DMW社는 1972년 올림픽 경기를 치렀던 경기장 바로 옆에 위치하여 뉘른을 찾는 사람들의 관광명소의 역할도 함께 하고 있는데, 이는 MBW본사의 건물형태가 매우 독특한데서 기인한다. 중앙기둥 하나에

4개의 원주형 건물이 상하로 모두 8개가 마치 매달려 있듯이 설계되어 건축물 자체가 못사람들의 시선을 집중시키기에 충분할 뿐만 아니라 자사 생산품에 대한 자체 박물관까지 갖추고 있어 찾는이의 즐거움을 더해 주고 있었다.

BMW社에서는 승용차 생산라인의 시작부터 완제품이 출하될 때까지의 전공정을 견학하였는 바, 거의 전공정은 로봇에 의한 공장자동화가 이루어져 있었으며, 특히 안내자의 말을 빌린다면 전공정의 완전자동화도 가능하나 실업등 사회적 문제를 고려해 완전자동화는 이루고 있지 않다고 한다.

BMW社는 전세계 자동차 시장중 1%를 점유하고 있으며, 자동차 메이커중 16위에 해당되며, 전세계 25개 자화사를 포함하여 50,000여명의 종업원이 근무하고 있다고 한다.

BMW社의 特許부서는 26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중 商標 및 意匠담당자는 3명이라고 한다. 特許出願동향은 1987년 전에는 연간 180~250건 정도 出願하였으며, 1988년에는 450건을 出願하였는 바, 出願의 90%이상 이 職務發明이고 實用新案出願은 거의 없다고 한다. 또한 보유特許중에는 약15년전에 特許된 기술을 아직 독점 사용하고 있다고 전하는 사실을 보아서 그 特許보다도 Know-How의 집약성이 대단할 것으로 생각되었다.

한편, BMW社는 韓國의 회사와 7년간의 特許라이센스를 체결하였는데, 그에 대한 Royalty는 매출액의 10~12% 수준으로 체결하였는 바, 관련업종은 자동차 윈도우에 관련된 것이라고 안내자는 귀뜸하여 주었다.

#### IV. 프랑스 파리 도착

6월 1日(木) 아침. 두 번째 방문지인 뮌헨을 뒤로하고 프랑스항공편으로 파리 드골공항에 오전 11시30분 도착하였다. 드골공항내에서는 지나온 몇개공항과는 달리 경찰이 매우 많이 눈에 띄었다. 우리 김포공항보다도 경찰의 수는 압도적으로 많은 것 같아 현지 가이드에

게 물었더니 이곳 프랑스는 아랍계 테러분자들이 매우 많아 테러를 방지코자 경찰이 많다고 하였다. 이는 공항 뿐만 아니라 시내거리에서도 마찬가지였다. 파리 샹젤리제거리의 개선문은 수리중이었으며, 7년 마다 40톤의 페인트를 잡아먹는 에펠탑은 금년으로 꼭 100년을 맞이하여 탑내에 「100ANS」라는 전광판이 불을 밝히고 있었다. 유행의 도시로 알려진 파리는 여타 다른 도시민보다는 이름에 걸맞게 세련되어 보였으나 거리의 분위기는 매우 무질서하게 보였다.

#### 1. 프랑스 特許協會(UNION DES FABRICANTS)

6월 1日 오후. 파리 도착후 한식으로 점심을 해결한 후 곧바로 프랑스의 첫 방문처인 개선문 뒤쪽의 프랑스特許協會를 방문하였다. 프랑스特許協會는 韓國發明特許協會와는 그 활동영역이 판이한 것 같았다. 한 마디로 韓國의 모조상표방지위원회와 비슷한 듯 하였다.

1872년에 獨逸이 프랑스 의약품, 화학약품을 도용하면서 설립된 프랑스特許協會는 현재 자동차, 시멘트 및 화장품 회사 등 국내외 총 1,200여 회사가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으며, 그 역할은 商標를 중심으로 자국 商品보호에 치중함과 더불어 정치적 외교적으로 외국에 대하여 자국 商標보호 및 상품의 도용 또는 모방방지를 강력히 요구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특히 협회 1층 로비에는 韓國의 이태원 등 세계 각국으로부터 수집한 모조상품 비교 전시장을 상설로 만들어 놓고 있을 뿐만 아니라 회원으로부터 보호요청을 받은 商標를 원본 그대로 책을 만들어 전시해 놓고 있었다.

접견자의 설명에 따르면 商標도용은 2,300년전인 로마시대때에 포도주, 양주의 시스템 商標가 원조라고 전하며, 그 실물을 전시해 놓고 있었다.

한편, 日本 동경 및 韓國 서울에 2개의 해외 지사를 두고 있는데, 상기 2곳에서 가장 많은 商標도용이 발생하고 있다고 접견자는 굳게 믿고 있는 것 같았다. 프랑스特許協會는 18명의 법률고문을 비롯하여 130여명의 직원이 商標보호에 불철주야 근무하고 있다고 한다.

마지막으로 접견자는 본 研修團員들이 特許 업무에 관한 스펙리스트이므로 귀국후 韓國 내에서의 모조商標방지에 앞장서줄 것을 당부 하였다.

## 2. 프랑스 特許廳(INPI)

6月 2日 아침. 상쾌한 아침 햇살을 받으며, 프랑스 特許廳을 방문하여 프랑스 特許制度에 대한 개괄적인 설명과 프랑스 特許廳의 데이터 베이스 검색실태 및 수록내용 등에 대하여 설명을 들었다.

### 1) 프랑스 特許制度의 特徵

일반적인 내용은 주지의 사실이므로 생략키로 하고 몇 가지 특징적인 것만을 거론한다면, 特許出願審査時에는 문헌보고서(Documentary Report)를 작성하며, 그 이전에는 조사보고서(Search Report)를 작성하여 일반에게 공개하는 바, 상기 문헌보고서는 이 조사보고서를 기초로 하여 작성된다. 그러나 出願인은 문헌보고서의 작성을 出願日로부터 18개월간 지연시켜 줄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또한 實用新案은 조사보고서나 문헌보고서를 작성하지 않으므로 無審査에 가깝다는 것이 특징이다.

### 2) 工業所有權 문헌실

特許문헌실, 의장·商標문헌실 및 EPO문헌실로 크게 나누어져 있는데, 特許문헌실은 1904년부터의 350,000건 公報 및 明細書를 보관하고 있으며, 特許公報는 서지적 사항 및 초록, 인덱스만 수록되어 주1회 발간되고 있는데 서지적 사항은 전산에 입력되어 컴퓨터단말기를 이용하여 검색이 가능토록 되어 있다.

한편, 意匠·商標문헌실에는 1930년 부터의 公報 및 원본을 페이퍼 및 Micro-film으로 900,000건을 보관하고 있으나, 商標도형은 出願인의 의사에 따라 상징적으로만 전산에 입력시키고 있다. 본 研修團은 이곳에서 국내기업(SAMSUNG)이 出願한 商標를 프랑스特許廳 D/B를 이용하여 검색하여 보았더니 총35건이 出願되었음이 검색되었고, 그 중 제7류에 속하는 것은 삼성전자와 삼성중공업이 '81. 1. 12과 '88. 12. 13에 出願한 2건이었다.

또한, EPO문헌실에는 EPO出願公報 및 明細書가 보관되어 있는데, 관계자는 EPO 出願건중 90%이상이 프랑스에서 등록되기를 희망하고 있다고 한다.

## 3. THOMSON社

프랑스 特許廳 방문을 마치고 프랑스정식으로 점심을 해결한 후 프랑스 굴지의 기업중 하나인 톰슨社를 방문하여 긴 시간 동안 세미나를 가졌다.

먼저 접견자인 特許部 Mr. Albert Grynwald 의 회사소개를 들었는데, 톰슨은 RCA를 인수한 미국 GE(General Electric)와 사업계약을 맺어 TV 및 VIDEO 분야에서 활기를 띠는 것 같았다.

톰슨社의 中央特許部 조직은 연구소 소속으로 24명이 근무하며, 出願은 연간 프랑스內에 500건, EPO에 350건, 美國에 300건, 日本에 100건 정도를 하고 있다.(중앙연구소에 한함).

한편, 特許部の 활동을 살펴보면, 연구소에서 개발한 發明을 수집하여 特許出願을 행하는데, 선원주의로 인한 조속出願이 중요하기 때문에 선행기술조사는 행하지 않으며, 외국출원여부의 결정은 出願後 Search Report를 받아 본 후 결정한다고 한다. 톰슨社의 해외出願건중 60%는 EPO에서, 10~20%는 日本에서 우선권주장 出願을 행하며, 개별국가 出願보다는 경비 및 절차가 간편한 EPO出願을 주로 이용하고 있다고 한다.

한편 特許部員들의 교육은 스트라스부르에 있는 工業所有權大學(CEIPI)의 1년과정을 수료토록 하며, 입사후 3년간은 明細書작성, 이의신청에 대한 답변서작성 등의 훈련을 거치고, 다음 1년간은 스트라스부르 工業所有權大學을 수료토록 하여 辨理士 1차시험에 응시토록 하는데, 합격률은 90 %정도로 높다고 한다.

1차시험에 합격한 다음 프랑스特許廳 실무시험에 응시토록 하는데, 합격률은 70%수준이라고 한다. 이렇게하여 Patent Graduate 자격을 취득하면 1~2년후에 European Patent Attonney 시험에 응시토록 하는 바, 이의

합격률은 40%수준이라고 한다.

## V. 이태리 로마 到着

6월 4일(日). 파리에서의 짧은 시간의 여정으로 떠나는 것이 못내 아쉬움이 남았으나, 고대문화의 고고한 유산이 살아 움직인다는 로마입성은 研修團의 마지막 방문처임에도 불구하고 단원들의 마음을 사로잡기에 충분하였다.

### 1. 이태리 特許廳

이태리는 1939. 6. 29. 發明特許法을 제정, 1987. 2. 14 최종 改正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었다. 특이한 것은 산업모델 特許法의 존재인데, 發明特許法과 산업모델特許法이 겹칠 경우 산업모델特許法을 우선 적용한다고 한다는 것과, 산업모델特許法에서 實用新案과 意匠을 다함께 다룰 뿐만아니라 實用新案과 意匠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규정을 두고 있다는 것이다.

特許廳의 연감(Annual Report)이나 안내서들은 '76년부터 예산상의 문제로 발간하고 있지 않으며, 特許나 實用新案보다는 패션 디자인 등을 포함한 意匠과 商標의 보호에 치중하고 있다고 한다. 特許廳에 근무하는 직원은 총 70여명에 불과한 점 및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볼 때 이태리는 다른 국가보다는 工業所有權에 있어 조금 뒤떨어져 있음을 느낄 수가 있었다.

特許出願審査에 있어서는 明細書 및 도면 등의 첨부서류와 發明의 단일성 여부 등 형식적인 審査를 하여 형식적 요건을 충족시켰다고

판단되는 出願은 실제심사로서 發明의 내용과 發明의 명칭의 일치 여부 및 特許대상 여부(不特許사유의 해당 여부)만을 審査하여 特許사정한다고 한다. 發明의 기술적가치나 경제적 가치는 審査하지 않기 때문에 特許받기가 용이하며, 特許사정에 정실 개입의 여지가 많은 것 같았다.

## VI. 研修를 마치면서

6월 4일. 이태리特許廳을 마지막으로 유럽지역 工業所有權 研修의 대장정의 막을 내렸다.

이번 研修를 통하여 얻은 결론은 工業所有權을 포함한 知的所有權의 활성화 및 정확화를 통한 기술의 진보·발전이 선진국으로 가는 지름길임을 다시 한번 느끼고, 직접 체험·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각국의 特許制度를 포함한 문화, 경제, 사회 등을 피부로 느끼면서 우리의 처지 및 현실과 비교하여 장단점을 파악할 수 있는 폭넓은 견문의 기회였다고 생각되며, 또한 국내 우수기업의 特許업무 종사자와 폭넓은 대화를 나눌 수 있었던 좋은 기회였다고 생각한다.

마지막으로 이번 유럽지역 研修를 주선한 韓國發明特許協會에 감사드리며, 이와 같은 研修가 자주 개최되어 이 분야 종사자들에게 좀더 많은 기회를 부여하여 주었으면 하는 것이 개인적인 바램이며, 더불어 본 研修가 개인과 회사 및 국가에 큰 보탬이 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이 研修記를 맺고자 한다. <♣>

## 發明特許資料 판매센터 移轉

우리協會 國內外 發明特許 관계 資料 판매센터가 지난 5월 4日 發明獎勵館의 移轉과 함께 서울시 江南區 三成洞 韓國綜合展示場(KOEX) 別館 2층 發明獎勵館 內로 移轉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活用바랍니다.

문의전화 : (서울) 551-5571~2